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범이

2021 학부연구 아산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발간사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삶의 방식의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하며 마을 곳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활동가와 실무자들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역센터로 요구되고 지향해야 할 사업을 시군 활동가들의 의견과 시군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21년 올해 주요한 사업으로 정책연구 사업을 확장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 전문가이자 당사자들인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작은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플랫폼, 시민자산화, 돌봄, 네트워크 진단,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9개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과 활동가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외부자의 시선,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연구이자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제안된 대안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연구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과 연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신남균

우리를 탐구하는 시간, 당사자들의 마을 연구

마을연구란 무엇일까요? 당사자들이 마을연구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와는 무엇이 다른지, 마을 연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의해 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작다는 것은 또 어떨까요. 상대적인 것인지, 절대적인 것인지 도무지 뭘지 모를 것이라고나 할까요? 작은 연구들이 완성되어 보고서가 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으니, 올해의 작은 연구 과정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연구공동체' 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마을연구란 것이 (아직은) 뭘지 모를 것이지만, '어쨌든 마을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탐구하고자 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나름의 생각을 마을공동체에 알리는 일을 하는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 이란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의 수준과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해당)마을공동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결과가 나오고 외부 평가가 좋게 나온다면, 탐구의 대상이었던 마을공동체에 의미가 없다면 작은 연구다운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 활동가가 연구자가 되고, 연구자가 마을 활동가가 되는 자연스러운 교류와 전환의 과정을 어떤 규격의 틀에 가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 문법들에 얽매이지 않는 마을 연구자의 탄생과 데뷔라는 과정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9개의 연구 결과물들은 기술 방법도 연구 방법론도 다 제각각이 되어 버렸지만, 대신 마을의 다이내믹함과 마을 연구자의 개성이 나타난 연구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사자들의 마을 연구는 더 많아져야 하고, 더 쉬워져야 하고, 더 자유분방하게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마을연구가 무엇인지, 마을연구자들이 누구인지도 밝혀지겠지요. 그 과정을 중단 없이 지원해 나가야겠다는 기획자이자 담당자로서의 바람이자 다짐도 조심스럽게 담아 봅니다. 용기 있게 첫 발을 댄 마을 주민이자, 이웃이자 동료인 '작은연구자' 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기획팀

마을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 작은연구자들의 멘토되기

활동가/단체가 자기 활동의 연구자가 되어보는 경험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의제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 가설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어보거나 분주함에 놓쳤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등등. 그게 무엇이든 직접 실천하는 분들의 경험은 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멘토의 쓰임새는 연구주제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 장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연구를 활동과 찰떡같이 연결시키는 현장 DNA 가득한 결과물을 보면서 다른 시선이 되기보다 “역시, 역시! 살아있네!”를 외치게 돼서 제 본분을 기억하려했던 순간이 더 많긴 했지만 앞으로도 작은연구지원사업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다른 위치성을 가져보는 기회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은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커뮤니티적인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누군가에겐 직업, 누군가에겐 사이드프로젝트 일 수 있지만 활동을 단단하게 해주는 유용한 방식·기술 중 하나입니다. 활동가/단체들에게 이번 작은연구지원사업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동 김희정

마을활동을 기록하는 작은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연구의 연구자들은 앞만 보고 달음질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그 동안 내 아이를 키워준 마을에 감사하여, 어떤 연구자는 자녀의 학교가 있는 마을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마을을 위해 무언가 시작해보려고, 어떤 연구자는 현재의 활동에서 나아가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작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각각 다른 이유로 시작한 마을 연구이지만 연구자들은 마을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은 그 동안 이유를 묻지 않았던 일들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옆에 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모두 활동가들이며 그 동안의 자신의 활동을 거리두기하며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발견과 성찰을 작은 연구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연구 활동은 마을활동 만큼이나 지난한 작업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많은 수고와 안내가 필요했으며 그 여정을 열심히 걸어오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에게는 작은연구 연구자들의 마을활동과 연구활동을 함께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연구자들의 성취의 경험이 저에게도 또 다른 성취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활동의 살아있는 실체를 담아내는 작은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도와사람 연구위원 임정현

작은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나 모임을 만나면서 들었던 마음은 '참 순수하다' 입니다. 어떤 개인적 이득이나 단체의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의 마을을 위해 이렇게 한결 같이 나서고 고민하는 모습이 컨설팅을 하는 저에게도 힘을 받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과 예산이 그분들의 기획하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업의 특성이나 적합성을 위해 사업 진행 전 교육이 조금 필요한 듯합니다.

예산, 결과보고에도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번기에 하는 사업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넘 힘든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한기 사업도 진행이 된다면 열심을 더 낼 수 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적은 예산에 이런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상연구소 지금 협동조합 이사장 정상민

지난 3개월 동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모한 작은연구지원사업에 자문역할로 참여하면서, 하남시 공익활동가협의회와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 교육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마을공동체의 관점과 형성으로 접근하고 해결해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남시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행정의 열악한 지원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활동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하남시공익활동가협의회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장 활동의 한계와 짧은 연구기간에도 한 땀 한 땀 충실한 연구과정을 거쳐 효능감 높은 결과물을 만든 과정은 어떠한 말로도 칭찬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연구를 주도한 주록리 마을공동체 노루목향기 어르신들의 연구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지역활동 경험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 더욱 빛나는 마을 돌봄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작은연구지원을 통해 마을현장에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향유하는 당사자로, 마을 연구과정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역량이 발휘되길 바래 봅니다.

강동로컬랩 사업단장 류양선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집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의 인연은 2015년부터 시작한 마을가꾸기(마을공동체) 사업의 마을지기(마을활동가)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과 2021년 작은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연구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특별한 관심분야는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자살률 감소이며, 이를 위해 교육과 상담, 연구를 통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사회복지학 석·박사), 한양사이버대학원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를 전공했습니다(심리학 석사). 현재 별꽃(주)대표,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및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연구목적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마을지기(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활동가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활동과 관심이 2017년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구경과

2021. 5-6

연구 설계 및 문헌 연구

2021. 7

설문 문항 구성

2021. 8

설문조사 진행

2021. 9

자료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은 '마을활동가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 및 성취에 따른 즐거움과 사회적 관계 유지, 휴식, 자아실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갖게 되는 인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호감, 안전감, 자부심, 소속감,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헌신과 의지적 실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원하는 삶과 대체로 가깝게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모형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AMOS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는 공동체의식($\beta=.661, p<.001$)과 삶의 만족도($\beta=.326, p<.001$)에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의식도 삶의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11, p<.001$). 따라서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ootstrap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간접효과는 0.206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Lower Bounds는 0.08, Upper Bounds는 0.346으로 나타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활동만족도 #삶의만족도 #공동체의식
#지속가능성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론적 배경

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연구방법

연구모형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연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균차이 검정 결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AMOS 분석 결과

결론 및 함의

연구결과 요약
이론적 함의
정책적 함의

서론

연구의 필요성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순히 주민주도 사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전반에 주민참여의 형태로 마을변화 및 지역사회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확장으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주민주체의 지역민주주의, 주민주도, 주민참여, 주민사업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주민참여형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주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풀뿌리 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공동체사업 진행은 정부 주도로 시작된 마을가꾸기 사업¹이 지자체로 이전되면서 주민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졌다(선남이 외, 2017).

마을공동체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주체의 확대, 사업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축이 되는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요구된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체인 마을활동가에 대한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커뮤니티 활동 등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최근 주민들의 인식을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주민참여사업의 일환 또는 발전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꿈의 학교 사업 참여자도 마을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민들을 마을활동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주민의 참여정도, 자발적참여의지, 사회적 가치추구,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주최측의 기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내용과 형태는 달라도 참여하는 이들을 마을활동가로 지칭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의 다양성만큼이나 마을활동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나 수준이 다르므로 마을활동가에 대한 광의의 정의 외에 각 사업 내용에 따른 협의의 정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협의적 정의로 “시·도 또는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마을활동가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정의를 근간으로 본 연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김유진, 2017),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강기훈·김성길, 2019),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이수인, 전희진, 최지훈, 2020), 공동체마을의 사회자본과 환경요인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성기호, 2015),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가 사회적자본 형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영연, 2021) 등이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운명이나 생활,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말한다. 즉, 소속된 집단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 사상이나 감정, 친근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장용석 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에 대한 참여로 측정된 공동체주의는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와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312). 연구내용을 토대로,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된다면, 공동체의식의 증진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이 그들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공동체의식이 활동만족과 삶의 만족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들의 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와 관계 살펴보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1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은 같은 취지로 사용되고 있다. 개념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좀 더 상위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 용어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마을공동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대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도는 마을활동가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2.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도는 마을활동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3. 마을활동가의 공동체의식은 마을활동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4. 마을활동가의 공동체의식은 활동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이론적 배경

활동 만족도

사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만족도란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국어사전). 만족도는 심리적 안녕, 행복, 사기의 개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며, 만족도를 업무에 적용한다면, 자신의 업무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얻게 되는 유쾌한 또는 긍정적 감정상태, 직무수행에서 나타나는 욕구충족의 정도, 자기실현의 가치와 감정에 대한 성취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McCormick & Tiflin, 1974; 진봉희, 2019: 33 재인용).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활동만족도를 살펴보면, 김유진(2017)의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서울연구원(2014)의 마을예술창작소의 활동 만족도를 재구성하여 4가지 요인, 즉 환경적,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활동 만족의 4가지 세부요인을 토대로 단체활동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구모형에는 심리적 활동 만족 중 활동 만족도의 전반을 묻는 활동 지속 의사와 관련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김유진, 2017:48). 다음으로, 심현학(2020)의 마을공동체 사업 만족도 관련 연구가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사업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선행연구 정도를 볼 때,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 관련 선

행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태이며,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 및 여가활동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도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활동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구성을 하였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주위 환경과 잘 적응하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박경숙, 2012; 이희태, 2011),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원하는 부분을 얼마나 채워주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이 느끼는 가치, 신념, 태도, 욕구 등 감정적 욕구에 대한 인상이나 지각을 의미하며, 자신의 봉사활동에서 얻어지는 자기실현의 감정과 가치 있는 성취감(김창석·최수일, 2012),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업무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만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것(구혜영, 2006)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진봉희, 2019:34).

다음으로, 여가활동 만족과 관련하여 차경숙(2016:10)은 “개인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일반적인 여가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는 주관적인 즐거움 또는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송은옥(2019:12)은 노인의 여가활동을 “노인의 욕구 및 피로 회복과 휴식, 그리고 신체적 활력을 높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공되고

내적인 동기화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최찬주(2020:10)는 노인 여가활동의 개념을 “노인의 욕구 및 성취에 따른 즐거움과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신체 활동의 욕구와 자아실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를 “마을활동가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 및 성취에 따른 즐거움과 사회적 관계 유지, 휴식,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만족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측정지표를 구성하였다. 지표는 Beard & Regheb(1980)의 여가만족척도(LSS)를 활용하여 국내연구자들이 여가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송은옥(2019)과 최찬주(2020)가 사용한 여가만족 척도의 문항을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동 만족도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송은옥(2019)과 최찬주(2020)가 사용한 여가만족 척도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대로 여가만족척도(LSS)를 개발한 Beard & Regheb(1980)가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의 구성요소를 교육적 요인, 심리적 요인, 휴식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의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척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적 요인은 소속감, 즐거움, 자유의 정도, 교육적 요인은 학습이나 지적 환경, 사회적 요인은 사고, 대인관계 유지, 휴식적 요인은 휴식과 긴장감 해소, 신체적 요인은 건강, 신체개발, 체력 유지, 환경적 요인은 미적 보상, 아름다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최찬주, 2020: 13-14).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 척도 중 신체적 만족 척도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만족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미적 보상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측정 내용을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환경적 요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5개의 하위 측정 지표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 측정 지표

항목	내용
심리적만족	흥미, 자부심, 성취감, 기량과 능력 발휘
교육적만족	지식 획득, 새로운 시도의 기회, 자신과 타인 이해
사회적만족	사회적 교류, 관계 유지, 친목 도모
휴식적만족	휴식,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
환경적만족	공간만족, 활동 물품 구비, 공간관리정도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의 사전적 정의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다. 사전적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스스로의 자각이나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듯, 공동체의식에 대한 논의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McMillan & Chavis(1986)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예상권·박희정·장희정, 2011:5 재인용).

권은혜(2016:43)는 도시재생 관련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에 관한 정의로 공동체의 내면화, 소속감 등이 자주 언급된다(Nisbst, 1962; Mcmillan, 1967; Mcmillan & Chavis, 1986; Cicognani et al., 2008; 신용하, 1987; 이라영, 2009)고 하면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동체의식이란 개인이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형성된 사상과 감정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유대감, 상호의존성, 소속감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을 “개인이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갖게 되는 인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호감, 안전감, 자부심, 소속감,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헌신과 의지적 실천”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척도를 살펴보면, Mcmillan & Chavis(1986)는 전체적인 공동체의식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구성원 감

정(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의 4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김경준·김성수(1998)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의 구성요소를 인용하고 있다(예상권·박희정·장희정, 2011:5-6).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정의를 적절하게 측정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된 척도로서, McMillan and Chavis (1986), Nasar and Julian(1995), Tartaglia(2006) 등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재구성하여 권은혜(2016:70)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공동체의식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개인의 주관적·정서적 감정으로 정의되어진다(Bryant & Veroff, 1982; 권은혜, 2016:48 재인용). 인간의 삶의 만족도² 문제는 1960~70년대 후반에 걸쳐 서구 선진국들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게 됨에 따라 이들 각국 사회의 급박한 당면 과제가 경제적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질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회개발에의 관심이 확대됨으로써 주목받게 되었다(김형수, 2008:21).

최근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하며 현실적으로 욕구가 충족된 상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생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개인이 갖고 있는 기대와 실제로 개인이 받는 보상과 기대치와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숙희·송선희, 2014; 정주원·조소연, 2015; 김성희, 2016; 이경준·송희경, 2016; 송기영, 2018:44-45 재인용).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Campbell (1976)은 삶의 만족과 주관적 안녕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개인이 추구하는 욕구 수준과 현재 생활 수준 간의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Johnson(1988)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황속에서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주관적인 만족과 가치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권은혜, 2016:51 재인용). 권은혜(2016:71)는 도시재생 관련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를 '지역에 대한 경제적 기대감은 물론, 지역 환경의 질적인 개선과 주민 간의 행복한 관계유지 등이 포함된 주민의 주관적 만

족감 및 행복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를 "자신이 원하는 삶과 대체로 가깝게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의 영역은 다차원적이라 학자마다 정의하는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처음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Neugarten, Havighurst, 그리고 Tobin(1961)은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조작적 정의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Life Satisfaction Index(LSI)를 개발하였는데, 이후 많은 연구자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해오고 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 중에서 좀 더 주관주의 행복론의 입장에서 Shin과 Johnson(1978)은 삶의 만족을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른 그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 사정"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들의 정의를 따라 Diener와 동료들(1985)은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대부분 나의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내삶의 조건은 훌륭하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삶 속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다른 선택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등 다섯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원도연, 2020: 13-14).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와 동료들(1985)이 개발한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권은혜(2016) 등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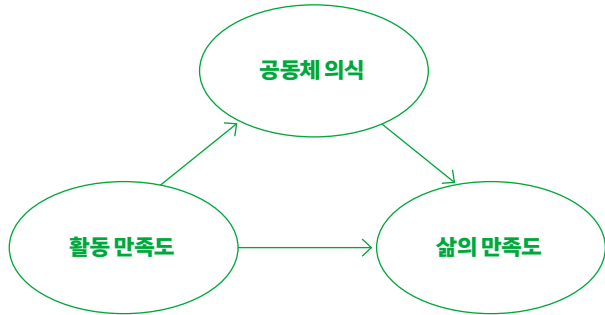
²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개념은 혼용되기도 하고, 연구자의 선호나 의도, 연구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삶의 질을 상의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상위개념 구분 없이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모두 삶의 만족도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모형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 공동체 의식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공동체 의식이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다음【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 및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의 설문항목을 토대로 각각의 변수들을 구성하고 조작화작업을 수행하였다.

1. 활동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를 “마을활동가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 및 성취에 따른 즐거움과 사회적 관계 유지, 휴식,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만족정도”로 정의하였다.

활동 만족도에 대한 측정변수는 Beard & Regheb(1980)의 여가만족척도(LSS)를 송은옥(2019)과 최찬주(2020) 등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동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활동 만족도의 하위 요인은 요인별 4문항씩 5개 항목, 총 20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응답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표 3-2-1】과 같다.

【표 3-2-1】 마을활동가 활동 만족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심리적만족	1, 2, 3, 4	5	.881
교육적만족	5, 6, 7, 8	5	.859
사회적만족	9, 10, 11, 12	5	.853
휴식적만족	13, 14, 15, 16	5	.892
환경적만족	17, 18, 19, 20	5	.899

2.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을 “개인이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갖게 되는 인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호감, 안전감, 자부심, 소속감,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헌신과 의지적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측정변수는 McMillan and Chavis(1986), Nasar and Julian(1995), Tartaglia(2006) 등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재구성하여 권은혜(2016) 등이 사용한 것으로 총 5문항,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응답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6으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자신이 원하는 삶과 대체로 가깝게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와 동료들(1985)이 개발한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권은혜(2016) 등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설문응답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결혼여부, 월소득, 직업, 동네(마을)거주기간, 거주지역, 마을활동기간, 마을활동을 통한 수익 경험여부,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유무, 마을공동체프로그램 내용 등을 사회통계학적 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마을활동가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의 범위와 영역, 명확성에 따라 연구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의 내용은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 봉사회(봉사활동모임), 지역주민 학습공동체, 경로당사업참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참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참여 등 형태가 다양하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와 같이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조직 등에 속한 이들을 모두 마을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활동의 내용이나 지원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활동가로서 정체성의 내용과 인식수준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결과의 도출과 적용을 위하여 마을활동가를 경기도 및 경기도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2021년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2021년 이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2021년 현재 경기도 및 지자체의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를 설문조사 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법은 비확률표집 중 눈덩이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구글폼과 인쇄된 종이설문지를 활용하였다.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설문항목 출처

측정변수	문항수	설문문항출처	설문구성방식	
활동 만족도	심리적만족	4	Beard & Regheb(1980), 송은옥(2019), 최찬주(2020) 등	5점 리커트척도
	교육적만족	4		
	사회적만족	4		
	휴식적만족	4		
	환경적만족	4		
공동체의식	-	5	McMillan and Chavis(1986), 권은혜(2016) 등	5점 리커트척도
삶의 만족도	-	5	Kalish(1975), 권은혜(2016) 등	5점 리커트척도
사회 인문학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거주기간, 직업, 월소득, 마을활동기간, 거주지역, 마을활동수익유무, 마을공동체활동공간유무, 마을공동체프로그램 내용		명목척도, 비율척도 등	

설문지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항목은 총 42문항이다. 활동만족도에 대한 설문항목은 심리적만족 요인 4문항, 교육적만족 요인 4문항, 사회적만족 요인 4문항, 휴식적만족 요인 4문항, 환경적만족 요인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공동체의식은 5문항, 삶의 만족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거주기간, 직업, 월소득, 마을활동기간, 거주지역, 마을활동수익유무, 마을공동체활동공간유무, 주마을공동체프로그램 내용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지표는 설문지로 만들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에 활용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구글폼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과 인쇄된 종이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조사는 2021년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응답자 선정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 중인 공동체 대표를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 공동체 대표, 마을활동가를 추천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추천받은 설문응답자를 통해 또 다른 마을활동가를 추천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천 받은 마을활동가를 통해 또다른 공동체의 마을활동가를 추천받는 방식의 눈덩이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21년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 지자체의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마을활동가이다. 설문응답자 중에서 2021년 이전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21년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공동체커뮤니티 단순참여자, 경로당 사업 참여자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응답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분석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작업을 하였으며, 추가 확인 통화 중에 또 다른 마을 활동가를 추천 받거나 같은 공동체의 마을활동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수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설문응답자는 총 259명이며, 이 중 추가 확인작업을 통해 2021년 경기도 또는 지자체에서 선정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38명을 제외하고 221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4.0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첫째,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항목의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AMOS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잠재요인들 간 인과관계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소득, 거주지역, 동네거주기간, 마을활동가로서의 활동기간, 마을활동가 활동수익 경험 유무, 마을공동체 공간 유무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4-1-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 46명(20.8%), ‘여자’ 175명(79.2%)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5명(2.3%), ‘30대’ 18명(8.1%), ‘40대’ 88명(39.8%), ‘50대’ 70명(31.7%), ‘60대’ 40명(18.1%)으로 나타나 40대와 50대가 응답자의 71.5%로 응답자 중 마을활동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 49명(22.2%), ‘대학교 졸업’ 141명(63.8%), ‘대학원 졸업 이상’ 31명(14.0%)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 21명(9.5%), ‘기혼’ 193명(87.3%), ‘기타’ 7명(3.2%)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56명(25.3%), ‘전문직’이 50명(2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 40명(18.1%), ‘200만원 미만’ 57명(25.8%), ‘300만원 미만’ 39명(17.6%), ‘400만원 미만’ 29명(13.1%), ‘500만원 미만’ 25명(11.3%), ‘500만원 이상’ 31명(14.0%)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총 12개지역으로 ‘광주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이다. 동네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5년’ 40명(18.1%), ‘6-10년’ 55명(24.9%), ‘11-15년’ 42명(19.0%), ‘16-20년’ 38명(17.2%), ‘21-25년’ 17명(7.7%), ‘26-30년’ 8명(3.6%), ‘30년 초과’ 21명(9.5%)으로 나타났다.

마을활동가로서의 활동기간은 ‘1년 이하’ 63명(28.5%), ‘1년 초과 2년 이하’ 40명(18.1%), ‘2년 초과 3년 이하’ 28명(12.7%), ‘3년 초과 4년 이하’ 23명(10.4%), ‘4년 초과 5년 이하’ 19명(8.6%), ‘5년 초과 10년 이하’ 43명(19.5%), ‘10년 초과 15년 이하’ 3명(1.4%), ‘15년 초과’ 2명(0.9%)으로 나타나, 마을활동가로 활동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7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1-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6	20.8
	여자	175	79.2
연령대	20대(20-29)	5	2.3
	30대(30-39)	18	8.1
	40대(40-49)	88	39.8
	50대(50-59)	70	31.7
	60대(60-69)	40	18.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49	22.2
	대학교 졸업	141	63.8
	대학원 졸업 이상	31	14.0
결혼 여부	미혼	21	9.5
	기혼	193	87.3
	기타	7	3.2
직업	전문직	50	22.6
	관리직	12	5.4
	사무직	22	10.0
	판매직	1	.5
	서비스직	17	7.7
	생산직	3	1.4
	농·임·어·축산업직	7	3.2
	자영업	22	10.0
	전업주부	56	25.3
	학생	4	1.8
	기타(무직, 군인 등)	27	12.2
월소득	100만원 미만	40	18.1
	200만원 미만	57	25.8
	300만원 미만	39	17.6
	400만원 미만	29	13.1
	500만원 미만	25	11.3
	500만원 이상	31	14.0

변수	범주	빈도	비율
거주 지역	광주시	6	2.7
	남양주시	86	38.9
	성남시	37	16.7
	수원시	14	6.3
	시흥시	5	2.3
	안산시	12	5.4
	여주시	3	1.4
	의왕시	7	3.2
	의정부시	8	3.6
	포천시	20	9.0
	하남시	15	6.8
	화성시	8	3.6
	동네 거주기간	1-5년	40
6-10년		55	24.9
11-15년		42	19.0
16-20년		38	17.2
21-25년		17	7.7
26-30년		8	3.6
30년 초과		21	9.5
마을 활동가 활동기간	1년 이하	63	28.5
	1년 초과 2년 이하	40	18.1
	2년 초과 3년 이하	28	12.7
	3년 초과 4년 이하	23	10.4
	4년 초과 5년 이하	19	8.6
	5년 초과 10년 이하	43	19.5
	10년 초과 15년 이하	3	1.4
15년 초과	2	.9	
활동 수익경험	있음	99	44.8
	없음	122	55.2
공동체 공간	있음	134	60.6
	없음	87	39.4

마을활동가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강사비, 활동비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있다’ 99명(44.8%), ‘없다’ 122명(55.2%)로 나타났다. 자신이 속한 마을공동체의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있다’ 134명(60.6%), ‘없다’ 87명(39.4%)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프로그램 내용”은 빈도분석 및 이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같은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설문 응답자들 중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내용을 다르게 작성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설문응답자가 분석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화를 통해 조사대상자 추가 확인을 하면서 마을공동체프로그램 내용을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 중 대다수가 마을공동체프로그램 내용을 명확히 응답하기 어려워하였다. 이는 공동체사업의 내용에 어려 사업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 등이 이유인 것을 전화를 통한 조사대상자 추가확인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활동만족도 수준

조사대상자의 활동만족도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는 다음 【표4-1-2】과 같다. 먼저, 심리적 만족은 최소값은 2.00점, 최대값은 5.00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표준편차)은 4.16점(.65)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만족의 경우, 최소값은 2.00점, 최대값은 5.00점, 평균(표준편차)은 4.23점(.58)로 나타났다. 사회적 만족은 최소값 2.50점, 최대값 5.00점, 평균(표준편차) 4.16(.64)으로 나타났으며, 휴식적 만족은 최소값은 1.00점, 최대값은 5.00점, 평균(표준편차)은 3.72점(.83)로 나타났고, 환경적 만족은 최소값 1.00점, 최대값 5.00점, 평균(표준편차) 3.77점(.90)으로 나타났다.

【표4-1-2】 활동만족도 수준

(응답자: 221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만족	2.00	5.00	4.16	.65
교육적 만족	2.00	5.00	4.23	.58
사회적 만족	2.50	5.00	4.16	.64
휴식적 만족	1.00	5.00	3.72	.83
환경적 만족	1.00	5.00	3.77	.90

활동만족도의 하위지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4-1-3】와 같다.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마을활동가로서 마을공동체 활동에서의 심리적 만족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7명(3.2%), ‘보통이다’ 53명(24.0%), ‘그렇다’ 114명(51.6%), ‘매우 그렇다’ 47명(21.3%)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만족은 ‘그렇지 않다’ 3명(1.4%), ‘보통이다’ 50명(22.6%), ‘그렇다’ 122명(55.2%), ‘매우 그렇다’ 46명(20.8%)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만족은 ‘그렇지 않다’ 5명(2.3%), ‘보통이다’ 70명(31.7%), ‘그렇다’ 101명(45.7%), ‘매우 그렇다’ 45명(20.4%)으로 나타났다.

휴식적 만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3명(1.4%), ‘그렇지 않다’ 30명(13.6%), ‘보통이다’ 80명(36.2%), ‘그렇다’ 79명(35.7%), ‘매우 그렇다’ 29명(13.1%)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만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7명(3.2%), ‘그렇지 않다’ 22명(10.0%), ‘보통이다’ 71명(32.1%), ‘그렇다’ 92명(41.6%), ‘매우 그렇다’ 29명(13.1%)으로 나타났다.

【표 4-1-3】 활동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단위: 명, %)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심리적만족	그렇지 않다	7	3.2
	보통이다	53	24.0
	그렇다	114	51.6
	매우 그렇다	47	21.3
교육적만족	그렇지 않다	3	1.4
	보통이다	50	22.6
	그렇다	122	55.2
	매우 그렇다	46	20.8
사회적만족	그렇지 않다	5	2.3
	보통이다	70	31.7
	그렇다	101	45.7
	매우 그렇다	45	20.4
변수	범주	빈도	비율
휴식적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3	1.4
	그렇지 않다	30	13.6
	보통이다	80	36.2
	그렇다	79	35.7
	매우 그렇다	29	13.1
환경적 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7	3.2
	그렇지 않다	22	10.0
	보통이다	71	32.1
	그렇다	92	41.6
	매우 그렇다	29	13.1

3.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수준

조사대상자들의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는 다음 【표 4-1-4】과 같다. 먼저, 공동체 의식의 최소값은 2.40점, 최대값은 5.00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표준편차)는 4.17점(.59)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최소값 2.20점, 최대값 5.00점, 평균(표준편차) 3.69점(.66)으로 나타났다.

【표 4-1-4】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 수준

(응답자: 221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동체 의식	2.40	5.00	4.17	.59
삶의 만족도	2.20	5.00	3.69	.66

평균차이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소득, 거주지역, 동네거주기간, 마을활동가로서의 활동기간, 마을활동가 활동수익 경험 유무, 마을공동체 공간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들 간의 평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표 4-2-1】과 같으며, 환경적 만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5$). 성별에 따른 환경적 만족의 평균(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남자는 4.05(.83), 여자는 3.69(.91)로 나타났다.

【표 4-2-1】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df=219)	
심리적 만족	남성	46	4.20	.64	.525
	여성	175	4.15	.65	
교육적 만족	남성	46	4.20	.61	-.343
	여성	175	4.23	.58	
사회적 만족	남성	46	4.21	.57	.544
	여성	175	4.15	.66	
휴식적 만족	남성	46	3.82	.85	.864
	여성	175	3.70	.83	
환경적 만족	남성	46	4.05	.83	2.468*
	여성	175	3.69	.91	
공동체 의식	남성	46	4.20	.50	.306
	여성	175	4.17	.61	
삶의 만족도	남성	46	3.67	.65	-.325
	여성	175	3.70	.66	

* $p < .05$, ** $p < .01$, *** $p < .001$

2. 연령대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삶의 만족도’에서 다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F=2.916, p<.05$). 사후검정 결과, 20대(20-29세)가 30대(30-39세) 및 60대(60-69세)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40-49세)와 50대(50-59세)는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연령대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구분	빈도 (명)	평균	표준 편차	F값	사후 검정	
삶의 만족도	20-29세	5	4.20 ^a	0.84	2.916*	b<a.
	30-39세	18	3.22 ^b	0.88		
	40-49세	88	3.42 ^{a,b}	0.78		
	50-59세	70	3.40 ^{a,b}	0.75		
	60-69세	40	3.10 ^b	0.74		

* $p<.05$, ** $p<.01$, *** $p<.001$, 삶의 만족도 Scheffe검증결과, 30-39세=60-69세<20-29세.

3. 최종학력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 먼저, 최종학력에 따른 환경적 만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4.858, p<.01$). 사후검정 결과 ‘환경적 만족’에서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상’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환경적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F=7.083, p<.01$). 사후검정 결과, 삶의 만족도는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상’은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월소득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월소득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2-4】과 같다. 월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다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635, p<.05$).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월소득에 따른 평균차이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 동네거주기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동네거주기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2-5】과 같다. 먼저, 동네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 만족이 다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260, p<.05$).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동네거주기간에 따른 평균차이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둘째, 동네거주기간에 따른 공동체의식이 미약하지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083, p<.1$).

6. 마을활동기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마을활동기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2-6】과 같다. 먼저, 마을활동기간에 따른 교육적 만족이 다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547, p<.05$). 사후검정 결과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15년 초과’ 마을활동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보다 교육적 만족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는 교육적 만족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활동기간에 따른 환경적 만족이 다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403, p<.05$). 사후검정결과, 마을활동기간에 따른 환경적 만족의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마을활동가 수익 여부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마을활동가 수익, 즉 “마을활동을 하면서 강사비, 활동비 등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2-7】와 같다. 분석결과, 휴식적 만족($p<.05$)과 공동체의식($p<.05$)에서 다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휴식적 만족의 평균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마을활동가 수익 경험이 있다’는 3.54(.89), ‘마을활동가 수익 경험이 없다’는 3.87(.76)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의식의 평균(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마을활동가 수익 경험이 있다’는 4.20(.65), ‘마을활동가 수익 경험이 없다’는 4.15(.53)로 나타났다.

8.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2-8】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만족($p<.05$)과 환경적 만족($p<.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만족의 평균(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이 있다’는 4.18(.60),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이 없다’는 4.14(.7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적 만족의 평균(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이 있다’는 4.04(.71),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이 없다’는 3.34(.01)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여부, 직업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3】 최종학력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환경적 만족	고등학교 졸업이하	49	3.84 ^a	0.83	4.858**	b<a
	대학교 졸업	141	3.48 ^{a,b}	0.95		
	대학원 졸업 이상	31	3.19 ^b	1.05		
삶의 만족도	고등학교 졸업이하	49	3.00 ^b	0.79	7.083**	b<a
	대학교 졸업	141	3.44 ^a	0.75		
	대학원 졸업 이상	31	3.55 ^a	0.81		

*p<.05, **p<.01, ***p<.001, Scheffe검증결과, 환경적 만족:대학원졸업이상<고등학교졸업이하, 삶의 만족도:고등학교 졸업이하<대학교 졸업=대학원졸업이상.

【표 4-2-4】 월소득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화 편차	F값	사후검정	
삶의 만족도	100만원 미만	40	3.00	0.68	2.635*	
	200만원 미만	57	3.35	0.77		
	300만원 미만	39	3.44	0.94		
	400만원 미만	29	3.59	0.82		
	500만원 미만	25	3.56	0.77		
	500만원 이상	31	3.35	0.61		

*p<.05, **p<.01, ***p<.001

【표 4-2-5】 동네거주기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화 편차	F값	사후검정	
심리적 만족	1-5년	40	4.05	0.64	2.260*	
	6-10년	55	3.65	0.87		
	11-15년	42	4.14	0.68		
	16-20년	38	3.95	0.77		
	21-25년	17	3.82	0.81		
	26-30년	8	3.63	0.74		
	30년 초과	21	3.95	0.59		
공동체 의식	1-5년	40	3.78	0.92	2.083†	
	6-10년	55	3.78	0.79		
	11-15년	42	4.14	0.68		
	16-20년	38	3.89	0.65		
	21-25년	17	3.53	0.51		
	26-30년	8	4.00	0.53		
	30년 초과	21	4.05	0.59		

*p<.05, **p<.01, ***p<.001

【표 4-2-6】마을활동기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교육적 만족	1년 이하	63	3.86 ^{a,b}	0.69	2.547*	b<a
	1년 초과 2년 이하	40	4.18 ^a	0.68		
	2년 초과 3년 이하	28	4.11 ^a	0.74		
	3년 초과 4년 이하	23	3.91 ^{a,b}	0.67		
	4년 초과 5년 이하	19	3.89 ^{a,b}	0.66		
	5년 초과 10년 이하	43	3.93 ^{a,b}	0.67		
	10년 초과 15년 이하	3	2.67 ^b	0.58		
15년 초과	2	4.00 ^a	0.00			
환경적 만족	1년 이하	63	3.76	0.84	2.403*	
	1년 초과 2년 이하	40	3.75	0.90		
	2년 초과 3년 이하	28	3.11	1.26		
	3년 초과 4년 이하	23	3.22	0.90		
	4년 초과 5년 이하	19	3.42	0.84		
	5년 초과 10년 이하	43	3.42	0.91		
	10년 초과 15년 이하	3	3.00	1.00		
15년 초과	2	4.00	0.00			

*p<.05, **p<.01, ***p<.001, Scheffe검증결과, 교육적 만족:10년초과 15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2년 초과 3년 이하=15년 초과.

【표 4-2-7】마을활동가 수의 여부에 따른 평균 차이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화 편차	t(df=219)	
심리적 만족	있다	99	4.20	.66	0.726
	없다	122	4.13	.64	
교육적 만족	있다	99	4.24	.53	0.287
	없다	122	4.22	.62	
사회적 만족	있다	99	4.12	.64	-0.928
	없다	122	4.20	.64	
휴식적 만족	있다	99	3.54	.89	-2.942*
	없다	122	3.87	.76	
환경적 만족	있다	99	3.63	.96	-2.064
	없다	122	3.88	.85	
공동체 의식	있다	99	4.20	.65	0.545*
	없다	122	4.15	.53	
삶의 만족도	있다	99	3.77	.61	1.609
	없다	122	3.63	.69	

*p<.05, **p<.01, ***p<.001

【표 4-2-8】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 차이

구분	빈도(단위:명)	평균	표준편차	t(df=219)	
심리적 만족	있다	134	4.13	.63	-0.779
	없다	87	4.20	.68	
교육적 만족	있다	134	4.21	.58	-0.582
	없다	87	4.26	.58	
사회적 만족	있다	134	4.18	.60	0.477*
	없다	87	4.14	.71	
휴식적 만족	있다	134	3.71	.81	-0.298
	없다	87	3.74	.88	
환경적 만족	있다	134	4.04	.71	6.029***
	없다	87	3.34	.01	
공동체 의식	있다	134	4.22	.57	1.396
	없다	87	4.10	.62	
삶의 만족도	있다	134	3.71	.65	0.610
	없다	87	3.66	.66	

*p<.05, **p<.01, ***p<.001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표 4-3-1】과 같다.

먼저, 성별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월소득(p<.05), 동네거주기간(p<.05), 공동체공간유무(p<.01), 환경적 만족(p<.05)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소득, 동네거주기간, 환경적 만족은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공간 유무는 정의 방향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동네거주기간(p<.01), 마을활동기간(p<.01), 심리적 만족(p<.01), 교육적 만족(p<.05), 삶의 만족도(p<.05)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네거주기간, 마을활동기간과 정의 방향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심리적 만족과는 부의 방향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교육적 만족, 삶의 만족도와는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최종학력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월소득(p<.01), 동네거주기간(p<.01), 마을활동기간(p<.05), 휴식적 만족(p<.05), 환경적 만족(p<.01), 삶의 만족도(p<.01)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소득, 삶의 만족도와 정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마을활동기간은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동네거주기간, 환경적 만족과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냈고, 휴식적 만족과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월소득의 경우, 성별(p<.05), 최종학력(p<.01), 삶의 만족도(p<.05)와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과는 정의 방향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섯째, 동네거주기간은 성별(p<.05), 연령대(p<.01), 최종학력(p<.01)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성별은 부적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연령대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정의 방향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섯째, 마을활동기간은 연령대(p<.01), 최종학력(p<.05), 활동수익여부(p<.01), 환경적 만족(p<.05)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마을활동기간은 연령대와 정의 방향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최종학력과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을활동을 통한 수익 여부에서는 부의 방향으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환경적 만족과는 부의 방향으로 다소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곱째, 활동수익여부는 마을활동기간(p<.01), 공동체공간 유무(p<.01), 휴식적 만족(p<.01), 환경적 만족(p<.05)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의 마을활동가 활동하면서 강사비나 활동비를 받은 경험이

【표 4-3-1】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0.066	1													
3	-0.070	-0.072	1												
4	-.158*	-0.007	.253**	1											
5	-.164*	.219**	-.174**	-0.032	1										
6	0.071	.289**	.156*	-0.052	0.102	1									
7	-0.036	0.092	-0.093	0.031	0.006	-.323**	1								
8	.185**	0.009	0.095	-0.004	-0.019	-0.057	.204**	1							
9	-0.017	-.176**	0.014	-0.014	-0.006	0.040	-0.084	0.060	1						
10	-0.001	-.133*	0.056	-0.036	-0.050	-0.059	0.020	0.026	.705**	1					
11	-0.019	-0.091	-0.078	-0.030	0.017	-0.050	0.051	-0.063	.648**	.682**	1				
12	-0.048	-0.127	-.145*	0.029	0.034	-0.089	.198**	0.052	.607**	.632**	.674**	1			
13	-.168*	-0.030	-.206**	0.043	0.113	-.156*	.164*	-.370**	.286**	.315**	.442**	.512**	1		
14	-0.021	-0.023	-0.022	0.044	0.065	0.051	-0.033	-0.060	.548**	.568**	.535**	.532**	.376**	1	
15	0.049	-.143*	.226**	.156*	-0.115	0.100	-0.076	-0.013	.420**	.434**	.410**	.396**	.177**	.508**	1

1. 성별	2. 연령대	3. 최종학력	4. 월소득	5. 동네거주기간
6. 마을활동기간	7. 활동수익여부	8. 공동체공간유무	9. 심리적만족	10. 교육적만족
11. 사회적만족	12. 휴식적만족	13. 환경적만족	14. 공동체의식	15. 삶의만족도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있는 경우에, 마을활동기간에 부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공동체공간유무와 휴식적 만족과는 정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관계, 환경적 만족과는 다소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덟째, 마을공동체의 활동 공간 유무는 성별(p<.01), 활동수익여부(p<.01), 환경적 만족(p<.01)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과 활동수익여부는 정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환경적 만족은 부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홉째, 심리적 만족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대(p<.01)와 부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만족(p<.01), 사회적 만족(p<.01), 휴식적 만족(p<.01), 환경적 만족(p<.01), 공동체의식(p<.01), 삶의 만족도(p<.01)와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째, 교육적 만족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대와 부의 방향으로 다소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심리적 만족(p<.01), 사회적 만족(p<.01), 휴식적 만족(p<.01), 환경적 만족(p<.01), 공동체의식(p<.01), 삶의 만족도(p<.01)와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째, 사회적 만족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통계학적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리적 만족(p<.01), 교육적 만족(p<.01), 휴식적 만족(p<.01), 환경적 만족(p<.01), 공동체의식(p<.01), 삶의 만족도(p<.01)와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두째, 휴식적 만족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종학력과 부의 방향으로 다소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5), 마을활동가 활동 수익여부와 정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1). 또한, 심리적 만족(p<.01), 교육적 만족(p<.01), 사회적 만족(p<.01), 환경적 만족(p<.01), 공동체의식(p<.01), 삶의 만족도(p<.01)와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셋째, 환경적 만족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과 마을활동기간은 부의 방향으로 다소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5), 최종학력과 공동체공간 유무는 부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1). 또한, 심리적 만족(p<.01), 교육적 만족(p<.01), 사회적 만족

(p<.01), 휴식적 만족(p<.01), 공동체의식(p<.01), 삶의 만족도(p<.01)와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넷째, 공동체의식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만족과 마찬가지로 사회통계학적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리적 만족(p<.01), 교육적 만족(p<.01), 사회적 만족(p<.01), 휴식적 만족(p<.01), 환경적 만족(p<.01), 삶의 만족도(p<.01)와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다섯째, 삶의 만족도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대와 부의 방향으로 다소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5), 최종학력과는 정의 방향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01), 월소득과는 정의 방향으로 다소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심리적 만족(p<.01), 교육적 만족(p<.01), 사회적 만족(p<.01), 휴식적 만족(p<.01), 환경적 만족(p<.01), 공동체의식(p<.01)과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각 변수들이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MOS 분석 결과

AMOS 분석에서 독립변수(외생변수)인 활동 만족도의 측정변수 중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을 사용하였고, 환경적 만족은 제외하였다. 이는 환경적 만족 투입 시 모형적합도가 적합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속변수(내생변수)인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의 문항은 측정변수가 각각 5개씩으로 AMOS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문항꾸러미(parcel)화 하여 각각 4개의 측정변수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변수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에 사용한 표본수는 221명이다.

1. 모형적합도 평가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LI와 CFI, RMSEA, SRMR을 분석하였다. TLI와 CFI의 값이 .90 이상이면 모형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RMSEA 값은 .08이하이면 양호하다(괜찮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10이하이면 적합도가 보통이라고 할 수 있고, .10보다 값이 클 경우 적합도가 나쁜 것

으로 판단한다. SRMR의 값은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는 다음 [표 4-4-1]에 제시하였다.

【표 4-4-1】 구조방정식 모델 적합도

모형	X ²	TLI	CFI	RMSEA		SRMR
	(df)			LO 90	HI 90	
적합도	141.971	0.927	0.944	0.090		0.0658
	51			0.073	0.108	

【표 4-4-1】을 살펴보면, χ^2 은 141.971, 자유도는 51로 나타났으며, TLI=0.927, CFI=0.944, RMSEA=0.090, SRMR=0.0658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관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모형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AMOS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 변수들의 측정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모형의 표준화계수 검증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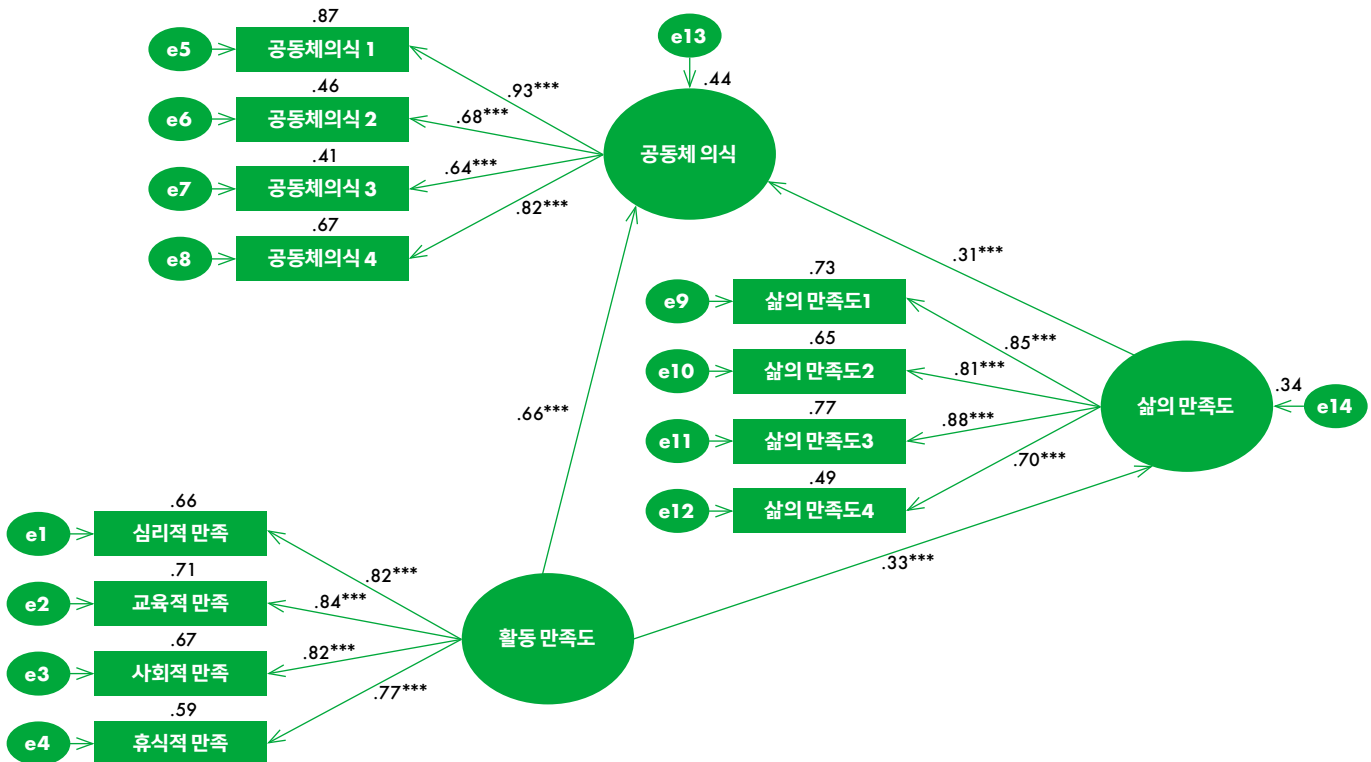
다음으로,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4-4-2]와 같다.

【표 4-4-2】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 결과

경로(가설)	β	표준오차	t	p
활동 만족도 → 공동체의식	0.643	0.067	9.573***	0.661
공동체의식 → 삶의 만족도	0.328	0.097	3.385***	0.311
활동 만족도 → 삶의 만족도	0.334	0.096	3.479***	0.326

*p<.05, **p<.01, ***p<.001

분석결과, 활동 만족도는 공동체의식에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661$, $p<.001$), 삶의 만족도에도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326$, $p<.001$). 또한 공동체의식도 삶의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311$, $p<.001$).



【그림 2】 AMOS를 사용한 연구모형 검증

따라서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검증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표준화된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Bootstrap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다음【표 4-4-3】과 같다.

【표 4-4-3】표준화된 간접효과

	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공동체성	0	0	0
삶의 만족도	0.206	0	0

표준화된 간접효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간접효과는 0.206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Bootstrap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Lower Bounds는 0.08, Upper Bounds는 0.346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Lower Bounds와 Upper Bounds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의 잠재변인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Bootstrap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간접효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간접효과는 0.206으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Lower Bounds와 Upper Bounds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확장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활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 확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주체의 확대, 사업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축이 되는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요구된다.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부분이다. 특히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가능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성장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지원, 마

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마을공동체 사업의 확장과 발전이라는 논의와 관련하여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균차이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환경적 만족, 연령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최종학력에 따른 환경적 만족과 삶의 만족도에서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 월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동네거주기간에 따른 심리적 만족과 공동체의식, 마을활동기간에 따른 교육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 마을활동가 수익 경험 여부에 따른 휴식적 만족과 공동체의식,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유무에 따른 사회적 만족, 환경적 만족에서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성별은 월소득, 동네거주기간, 환경적 만족은 부의 방향으로, 공동체공간 유무는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령대는 동네거주기간, 마을활동기간과 정의 방향,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삶의 만족도와는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월소득, 마을활동기간, 삶의 만족도와 정의 방향으로, 동네거주기간, 휴식적 만족, 환경적 만족과는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월소득은 성별의 경우 부의 방향으로, 최종학력과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동네거주기간은 성별과 최종학력은 부의 방향으로, 연령대와는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마을활동기간은 연령대, 최종학력과 정의 방향으로, 활동수익 경험여부와 환경적 만족과는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을활동을 통한 수익 경험 여부는 마을활동기간과 부의 방향으로, 공동체공간유무, 휴식적 만족 및 환경적 만족과는 정의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을공동체의 활동 공간 유무는 성별과 활동수익 경험여부는 정의 방향으로, 환경적 만족은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활동만족도와 사회통계학적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만족 및 교육적 만족은 연령대와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만족은 사회통계학적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휴식적 만족은 최종학력과 부의 방향으로, 마을활동가 활동 수익 경험여부와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환경적 만족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과 마을활동기간, 최종학력과 공동체공간 유무와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활동만족도의 각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 및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와와의 분석결과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동체의식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만족과 마찬가지로 사회통계학적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활동만족도의 각 하위변인,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연령대와 부의 방향으로, 최종학력 및 월소득과는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만족도의 각 하위변인과 공동체의식과는 정의 방향으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각 변수들이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AMOS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활동 만족도는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도 삶의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활동가에 대한 개념정리가 요구된다.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마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을활동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 조직 및 단체의 특징, 활동내용, 추구하는 가치, 지원체계 등을 고려할 때 마을활동가에 대한 협의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및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한 성과나 기대감은 다른 공동체, 즉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봉사회,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사회커뮤니티 등의 활동에 대한 성과나 기대감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협의의 개념 정립은 각기 다른 성격의 공동체나 단체의 성과나 지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둘째,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요구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봉사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에 대한 활동만족도 지표가 개발되어 사용되는 것과 달리, 마을공동체 사업의 마을활동가에 대한 활동 만족도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는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 정도가 공동체성을 공고히 하고, 마을활동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성장,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마을공동체지원조직은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편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통계학적 변수와 측정 변수 간 평균차이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났으며, 측정변인 간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활동가의 수익활동에 대한 것이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강사비, 활동비 등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휴식적 만족과 공동체의식에서 다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공동체의식이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정의 방향으로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마을활동가의 공동체의식 증진,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반면, 수익 경험이 없을 때, 휴식적 만족 평균이 다소 높은게 나타난 것은 마을활동가로서의 활동량, 활동수준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것이다.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유무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결과, 사회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 모두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이 있을 때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위해 마을공동체의 대표들과 면담 시,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체의 공간이 마련된 후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 증진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경기도 및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에 마을활동가의 활동 만족도 증진을 위한 예산 항목의 추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마을공동체지원조직 차원에서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도 증진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마을활동가의 활동만족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지속가능성을 더욱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기훈·김성길. 2019.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여군 부여읍 구교1·3리의 새뜰마을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54권 제1호 통권240호 (2019년 2월), p.95-107.
- 권은혜. 2016.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자주적 관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주민참여도와 공동체의식 수준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김유진. 2017.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 마을예술창작소와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옥. 2018.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방극천. 2020. “노인의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선남이 외. 2017. “주민의 참여동기에 따른 마을가꾸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차이 연구”. 경기도마포공동체지원센터.
- 성기호. 2015. “공동체마을의 사회자본과 환경요인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송기영. 2018. “장애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송은옥. 2019. “노인의 여가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심현학. 2020. “마을공동체 사업 만족도가 공동체 의식 및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논문.
- 원도연. 2020. “사회활동참여를 매개로 한 노인자신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물질적 열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수인·전희진·최지훈. 2020.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전주 전북연구원(jthink).
- 이영연. 2021.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가 사회적자본 형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삼척시 구룡탄 새뜰마을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용석 외.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6집 제5호, pp.289-322. 한국사회학회.
- 진봉희. 2019.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 및 자원봉사 활동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및 노화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차경숙. 2016.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 최문형·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9권제2호. pp.273-306
- 최찬주. 2020.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하병규.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 작은연구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01

디자인 플랜포히어

홈페이지 ggmaeul.or.kr

페이스북 @ggmaeulcenter

유튜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문의 031.852.2299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시골로 간다 × 영민 씨의

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연구소에서

www.jongmal.or.kr